

보도자료



MKIF 9 월 19 일 임시 주주총회 개최

(2018 년 8 월 6 일, 서울)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MKIF)는 9 월 19 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6 월 26 일 MKIF 의 소수주주인 플랫폼자산운용의 펀드(이하 ‘플랫폼’)는 MKIF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하고 안건으로 기존 MKIF 법인이사이자 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을 코람코자산운용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MKIF 이사회는 7 월 13 일 플랫폼의 실질주주증명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과 MKIF 의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했다.

주주총회는 9 월 19 일 오후 3 시 30 분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지하 2 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주총 의장은 정우영 MKIF 감독이사(현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주주명부상 8 월 21 일 (장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 주주들은 기존 MKIF 법인이사이자 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을 코람코자산운용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위한 주주 결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참여를 최대화하기 위해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요청해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존 MKIF 법인이사이자 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을 코람코자산운용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안건이 통과될 경우 MKIF 는 주주총회일로부터 35 일 이내에 안건에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의사를 밝힌 주주의 주식을 주주총회 전 15 영업일 전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 15 거래일 동안 거래소의 주식 종가의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에 모두 매수해야 하므로 MKIF 는 이에 따른 심각한 재무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None of the entities noted in this document is an 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 for the purposes of the Banking Act 1959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obligations of these entities do not represent deposits or other liabilities of Macquarie Bank Limited ABN 46 008 583 542 (MBL). MBL does not guarantee or otherwise provide assurance in respect of the obligations of these entities.

본 건 문서에 언급된 어느 법인도 호주의 은행법(Banking Act 1959)상 인가된 예금수취기관이 아닙니다. 이들 법인의 채무는 맥쿼리은행(ABN 46 008 583 542)의 예금이나 부채가 아닙니다. 또한 맥쿼리은행은 이들 법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보증을 하거나 기타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MKIF 감독이사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2 개 회계법인 및 1 개 법무법인을 선정해 그 동안 플랫폼이 제기했던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플랫폼의 주장과 달리, MKIF 운용보수는 국내외 유사 펀드들의 보수 수준 대비 낮거나 유사 펀드들의 보수 수준 범위에 포함되고, 플랫폼이 지적했던 맥쿼리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특정 거래 행위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투자자산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도 국내 유사회사들이 지급하는 인건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감독이사들은 법인이사 변경이라는 주주총회 안건을 검토하고자 맥쿼리자산운용 및 코람코자산운용에 MKIF 의 운용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코람코자산운용이 약간의 유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MKIF 와 같은 성격의 회사의 운영에 요구되는 필요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이사를 맥쿼리자산운용에서 코람코자산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MKIF 의 운영에 불안정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MKIF 의 법인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MKIF 는 (가) 안건에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하기 위한 금액, (나) 현 법인이사에게 지급할 해지금, (다) 대출금과 사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다양한 재무적 손실과 위험에 노출되며, MKIF 가 분배금을 지급할 여력이 취약해질 수 있고, 상당한 주주가치 훼손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감독이사들은 판단했다.

이에 법인이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을 제외한 MKIF 의 감독이사들은 법인이사 변경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MKIF 는 금융감독원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신고서를 제출했다.

추가문의

맥쿼리 그룹(한국) 김선미 홍보 부문장

직통: (02) 3705 8582 / 휴대폰: 010 7610 4020

sunmi.kim@macquarie.com

None of the entities noted in this document is an 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 for the purposes of the Banking Act 1959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obligations of these entities do not represent deposits or other liabilities of Macquarie Bank Limited ABN 46 008 583 542 (MBL). MBL does not guarantee or otherwise provide assurance in respect of the obligations of these entities.

본 건 문서에 언급된 어느 법인도 호주의 은행법(Banking Act 1959)상 인가된 예금수취기관이 아닙니다. 이들 법인의 채무는 맥쿼리은행(ABN 46 008 583 542)의 예금이나 부채가 아닙니다. 또한 맥쿼리은행은 이들 법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보증을 하거나 기타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